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7, 아합과 엘리야 시대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었습니다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글쎄요, 지금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약간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멋진 한 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내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라건대 매우 심오한 차원에서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대신에 일어났던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이 서류를 읽으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에 관해 발표하는 이유는 귀하의 친구, 룸메이트 또는 문고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드카피 논문을 먼저 읽고 있어요.

그룹별로 하니까 잠언 25장이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모두 끝내려면 일주일 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오늘과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중 일부를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일주일 반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지사항과 관련해 꼭 알려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우리에게 오래되고 친숙한 노래를 부르자.

괜찮은? 시편 133편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서,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엊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함, 일부 사람들의 질병, 좌절, 불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당신이 전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살아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 다가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적개심과 기근, 그리고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빛의 등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감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솔로몬과 관련된 지혜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 복습해야 합니다. 이제 백업해 보겠습니다.

우선, 옛날부터 판사 시절. 내가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걸까? 오늘 자료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과 같은 패턴은 그 당시에 잘 확립된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불타올랐고, 그러다가 배도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분께 돌아섰습니다.

그는 배달원을 보냈지만 그 주기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일종의 인간 본성의 순환이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주제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전체 사업의 핵심 선지자였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여러 면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걸까요? 글쎄,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잠언의 놀라운 것들과 전도서와 육의 난처한 질문들에 관해 일주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혜 문학으로 옮긴 후, 우리는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 여러분이 역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 말은, 나는 지혜 문학을 좋아하지만, 역사는 정말 재미있고, 거기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여기에 검토 질문이 있습니다. 일주일 반을 되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왕국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아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3개는 어때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자신의 재산을 너무 많이 넘겨주었습니다. 또는 D, 솔로몬은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방 신들에게 제단을 쌓았으나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 그건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D. Chris에게 반박할 사람이 있나요? 응, D야. 아, 그거 다 같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죄송해요.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쨌든,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그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오한 양의 지혜를 주셨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동맹과 정치적 자본은 아내와 첨이었다고 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마음이 그들을 따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꿈으로 그에게 알리셨고 또 실로 출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그에게 알리셨더라. 그것이 우리가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열, 솔로몬의 배교,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방금 언급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열 지파를 빼앗으시고 그것들을 당신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중단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을 시작하여 19장까지 쭉 가면서 오늘은 평행 기록과 연대기를 통해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 정보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강의 노트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통치자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N과 S를 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읽어보셨다면 이름이 놀라울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같은 이름의 왕이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북쪽과 남쪽, N과 S라고 말함으로써 분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는 이러한 개별 왕국 각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참고로 우리가 북쪽 왕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시점부터는 대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무리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왕국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이스라엘로 언급될 것입니다.

남왕국은 유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남왕국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쪽 왕국은 종종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추측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왜 북쪽 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백업하자.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첼시. 사실,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손을 꼬집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여기서 탁월한 아들이 될 것이며 지배적인 지파가 될 것입니다

.

크기 면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므낫세는 모든 종류의 면적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가장 지배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거기에 다음 것이 더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미국을 언급할 때 미국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DC가 말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전체 정치적 실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하게 되는 눈에 띄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는 결국 북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지는 않지만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특히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북쪽 왕국을

에브라임, 때로는 사마리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 왕국 전체를 나타낼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보통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주일 반, 그들에게는 200년과 몇 년 안에 펼쳐질 중요한 일들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 사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암시했듯이, 수도는 북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잠시 후에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가 위치한 곳에 안정성이 있다고는 단 한 순간도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3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가능한 위치를 제안합니다.

마치 워싱턴 DC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약간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필라델피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겠죠. 반면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이 항상 수도입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날 때에도 예루살렘은 수도로서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는 불안정성,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왕조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당신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다음 주쯤에 북쪽의 해, 왕국의 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주요 왕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4개의 주요 왕조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각 왕조를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약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에서 여러분은 확실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6장에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변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내전이 일어나고 군사 통치자들이 장악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혹은 미안하지만 다윗왕조는 언제나 우리 남쪽에 있는 계통입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다가가면 이야기할 아주 작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달라이고 사악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조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약 200년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형으로 인해 지리학이 다시 흥미로워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서 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북쪽 왕국은 특히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후(잠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영향력에 개방되었습니다.

지형이 더 쉽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그다지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나쁜 영향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까지 영어로 말하고 있나요? 다행이네요. 좋아, 계속하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도서관의 참고자료 섹션, NIV 성경 지도책 또는 기타 유사한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면 분열된 왕국을 다루는 지도를 찾으세요. 우선, 여기 있습니다.

북부 부족들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기 있는 두 부족 반은 거의 북부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행실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남쪽으로 넘어오려는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북쪽 지파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벤저민과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외우도록 강요한 부족 할당을 기억할 것입니다. 벤자민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항상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지점인 경계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경 지역은 변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자료를 읽으셨다면, 남부가 좀 더 강해지고 북쪽으로 밀려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비야는 북쪽으로 멀리까지 밀고 나가서 베델 너머까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현대 상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전투와 분쟁이 있고 항상 국경이 변동하는 곳이죠. 그들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머리 기호, 다시 지도를 봅니다. 여기 베델, 여기 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국 분열의 결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는 베델과 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응, 첼시? 네,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죠, 그렇죠? 이제 잠시후 이와 연계하여 지도를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모든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일년에 세 번씩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았습니까? 그들은 1년에 세 번씩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이것은 토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라를 잊을 수 없습니다.

케이티? 네, 그들은 그 세 가지 중요한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이스르엘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스르엘은 우연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2일 반, 3일 정도 걸리고 이제 그곳은 적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가데스나 하솔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긴, 아마도 4일 간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냥 물건을 들고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쉽지 않나요? 여로보암이 한 일은 구도자 친화적인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로 오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요 금송아지를 가리킨 것이니라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쉬울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저기서 두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편안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신명기 12장과 다른 곳에서도 언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일한 종교를 즐기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베델과 댄, 그리고 그 장소는 중요하고 그들은 꽤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응, 레베카? 네, 문제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가입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다? 그는 성전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제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단 나누기에 관한 전체 내용을 읽을 때 잠시 후 13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는 그러한 장신구 중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그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금송아지에는 선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아론은 아마도 이집트의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실제로 야훼 자신의 표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개념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이 매우 교활한 일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송아지는 바알 숭배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바알 숭배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하지만 이것이 나의 빠른 답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북쪽의 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세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세겜이 이곳에서 오래되고 전통적이며 참되고 존경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땅에 왔던 곳이고, 언약 갱신과 같은 다른 일들이 펼쳐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중요합니다. 티르차(Tirzah)까지 이동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비록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줄 사이를 읽어야 하지만 그 이유는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침략하려 올 때 그는 남쪽과 예루살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서 세겜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물건, 즉 그가 이집트에 남겨둔 물건을 읽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디르사로 올라가도록 강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멀고 더 한적합니다. 당분간은 더 안전한 곳이군요. 당분간은 더 안전한 곳이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약 30분 정도 후에 보게 될 경우, 이름이 오므리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뇨, 우리가 자본을 여기로 옮기고 있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지도에서 다시 작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리적으로 더 개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는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페니키아인이군요. 그곳은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바알 숭배를 국교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바로 여기 사마리아로의 이주로 인해 도움을 받고 부추겨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자본과 그 움직임의 의미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멜 산은 바로 여기 지중해, 즉 높은 곳으로 튀어나온 산입니다.

실제로 이 전체 길이를 확장합니다. 바로 거기, 가장 중요한 지점, 갈멜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유명한 이야기. 매트? 응.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시돈이 있고, 여기는 티레가 있고, 저기가 페니키아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페니키아의 지배 지역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가 나올 무렵 페니키아인들은 사실상 그들의 통치권을 갈멜 산까지 거의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경계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경계였다. 산이다.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알 승배 페니키아인들이 여기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북부 부족들을 압도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들은 바로 여기 있는 부족인 Asher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바알, 아세라, 엘리야의 선지자들 사이의 경쟁에 대해 약 20분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즈르엘,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여기에서 언급했지요.

사마리아에서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분단왕국 시대에는 겨울이 되면 지배 가문, 즉 왕족이 활동 기지를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고도가 높은 사마리아에서 저지대인 이스르엘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도 .

더 따뜻해요. 당신이나 나처럼 중앙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들은 2월에 매사추세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요점을 이해합니다. 이스르엘은 또한 어떤 면에서 일종의 수도, 일종의 제2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이세벨이 있고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글쎄요, 호렙산은 지도에 나오지 않죠?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도망치게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엘리야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격 길로앗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거나,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정말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가 중요해요.

이곳은 북왕국과 시리아의 빈번한 전쟁터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시리아는 북쪽 왕국의 바로 북쪽과 동쪽에 있는 우리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이든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시리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빌로니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리아, 즉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지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도에 빨간 선으로만 표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무역 경로입니다. 따라서 Remote Gilead와 같이 중요하고 중대한 교차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양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문제로 시리아와 자주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 곳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굴복하고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들은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돌아가서 지도책 어딘가에서 지도를 찾으세요.

아마도 당신의 성경 뒷면에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응, 트레버? 이스르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이스르엘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하며 우리는 경전에서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부 왕국 사람들의 겨울 수도로 포장을 풀면 꽤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이지만 그들은 이스르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가 더 따뜻해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오늘은 너무 출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 문학이 역사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제 정치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구약성서의 평행선에서 읽은 내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연결을 만들어보세요.

시리아는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해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벤하닷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왕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겁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닷의 아들이다. 하닷은 바알이나 바알과 유사한 또 다른 언어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통치 인물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비야, 아비야.

아비야는 야훼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다른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초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살만에셀 3세의 구약과 평행을 이루는 몇몇 본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을 언급하는데, 아합은 오모리의 아들입니다. 살만에셀 3세는 또한 이번 주 후반에 우리가 언급할 또 다른 북쪽 왕 예후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비록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로 사악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일단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합니다.

아합과 오므리는 이 밖의 본문에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왕국이 좀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더 국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갈라놓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아합에 대해 매우 불쾌한 말이 나옵니다. 역대 최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괜찮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말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아마도 엘리야 이야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핵심일 것입니다. 바로 제가 방금 언급한 페니키아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말할 때 바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알은 앞서 말했듯이 신들의 왕이다.

여러분에게는 엘이 있고, 바알이 있고, 아낫이 있고, 이 가나안 판테온에는 다른 몇 사람과 몇 사람, 그 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종의 최고 혼초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나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제가 방금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바알은 비, 폭풍, 천둥을 통제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남동쪽의 유감스러운 남서쪽 가장자리가 비와 폭풍에 절대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풍이 그들에게 농업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비가 없으면 일할 강이 없기 때문에 작별 인사입니다.

따라서 바알을 조종하여 바알이 비 등을 내리게 하는 일을 시도하고 행하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믿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유사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고 조종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일을 합니다.

이 경우 우상 승배의 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이 원하는 대로 바알이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백성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제 정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의 이 지역에서는 정치가 항상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 점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끔찍한 점은 이름과 날짜가 포함된 차트입니다. 아, 절대 안돼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몇 가지 이름과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것에 조금씩 더 추가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알고 싶은 날짜는 많지 않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왕국의 분열. 읽는 사람에 따라 933일 수도 있고, 931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가까운 거 아시죠? 931년에는 북부 10개 주가 전체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왕조를 시작합니다. 색깔로 표시된 이름은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리의 첫 번째 왕조였습니다.

바아사는 두 번째 왕조가 될 것입니다. 오므리는 세 번째 왕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괜찮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왕조의 이름을 알아라. 전복이 얼마나 빠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줄 사이를 읽었으므로 줄 사이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줄 사이를 읽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므리, 글쎄요, 그는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가 통치자로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아시나요? 트레버? 아, 심지어 더 적습니다.

그보다 더 적은 거야, 크리스. 7일. 7일.

즉,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북쪽 왕국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화와 분열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음번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예언적 이름을 살펴보고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히야는 실제로 그 옷을 찢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에 관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할 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사실 남쪽 출신이지만 북쪽으로 가서 예언할 것입니다. 나는 강의에서 스마야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고, 물론 엘리야가 우리의 주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를 거쳐 남방 왕의 관점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방을 위해 할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음 번에 여호사밧을 구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외국의 영향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차트는 분열된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자, 왕국의 분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르호보암의 판단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레베카? 응.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면에서 영리했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가 세겜으로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금, 강제 노동.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강제 노동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레베가가 말한 대로 르호보암은 장로들에게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느냐? 그는 강인해지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후자와 함께 갑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쪽 지파들을 쫓아내는데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도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단지 생각 없는 졸개가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내가 이미 설명했던 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인 아론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제사장으로 삼았지요? 자, 여러분은 민수기 16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결과 고라의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염소 우상을 세운 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곳곳에 우상 숭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담하게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십계명 중 처음 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축제는 여덟째 달에 있다. 그거 무슨 문제 있어? 축제, 가을 축제는 언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나요? 일곱 번째 달이죠? 초막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는 그것을 여덟째 달에 세웠다.

매우 편리합니다. 아,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여기로 오세요.

한 달 후입니다. 별거 아니야. 이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한 사람들은 실제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이 일에 크게 불만을 품은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남쪽으로 간다고 언급합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끝에서 본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판사. 언약을 읽고 쓰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의 조건이나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더 쉬웠습니다. 친숙한. 물론 오늘날에도 같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거기에는 정결한 겉모습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맥락에서는... 네, 레베카,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미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애굽으로 피신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북쪽 왕국 출신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는 북쪽 왕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쪽. 네, 르호보암은 남쪽에 있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어요.

따라서 여로보암은 이 시점에서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왕국을 갖고 있지만,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유다 지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에게도 자신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본문을 얻으셨다면 13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험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부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벤엘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 제사장도 아니고... 제단 곁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읽었다면,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읽어보세요. 흥미로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는 선지자로 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이름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짓는 것은 영광이니까.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정말 불순종하고 완전히 뻔뻔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들을 익명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르되 금송아지가 있는 벤엘에 오, 제단이여, 제단이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뼈를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3절,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글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언제 현장에 나타날지 아시나요? 라인 아래에 있는 모피 조각입니다. 요시아는 기원전 625년경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 BC. 그로부터 약 300년 후입니다. 자, 그렇게 장기적인 예언이 있을 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300년 후 그때쯤에는 일어나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과 함께 표징이 주어졌을 때, 그 표징은 연대순으로 가까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예언도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표시가 발생합니다. 제단이 갈라집니다.

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로보암은 이것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시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병이 다시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는 다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요시야라는 남자에 대한 장기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표적, 예언적 표적을 보게 될 유일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펼쳐지고 여로보암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랑 같이 집에 가는 게 어때요? 그리고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아는 여기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가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베델 출신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주의 깊게 읽고 있다면 안테나가 이 시점에서 흔들리고 있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후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책망의 말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그가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누군가가 옵니다.

적의 전선을 넘어 이런 선언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아마도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지금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18절.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되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거짓말은 이 선지자가 내면적으로 괴로워하고 좌절했으며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악한 순간에 그는 이 젊은 남자를 잡으려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서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늙은 선지자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은 돌아와서 그가 하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느니라. 물론 그 청년은 떠나가면서 실제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노인의 아들들은 노인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젊은 선지자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의 뼈와 함께 묻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영향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두 사람 모두 순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유다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그 늙은 선지자가 왜 이 시점에서 그토록 극악무도하게 기만적이었을지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악한 것들. 그런데 슬픈 결론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거짓 종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쪽 왕국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올무가 됩니다.

글쎄, 그것은 왕국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배교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조금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르호보암과 열왕기상 14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르호보암은 시작은 꽤 괜찮았으나 그 다음에는 정말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하게도 종교적 배도에 연루되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 펼쳐진 모든 나무 아래 산당과 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라. 그것은 떠나기에는 그다지 좋은 영적 유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나머지 문화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인용되지 않은 작업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북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처벌은 파라오 시삭이 침략하고 우리가 시삭에게서 물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헌에서는 그를 시샤크(Shishack)라고 부릅니다.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꽤 일찍 끝난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암살당함. 매우 짧은 왕조.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S는 남쪽을, N은 북쪽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5장은 진행되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일을 묘사합니다.

아사,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아사라고 발음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사는 다윗 계통의 선한 왕입니다.

옳은 일을 합니다. 남방 왕 아비야를 빼먹었다는 걸 알지만 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Asa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 중 일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냥 그 물건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역대기와 병행되는 역대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전체 지역입니다. 우리는 괴물같은 침략군이 쳐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거대한 침략군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아사는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 저지대를 기억하면서 세펠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진행됩니다. 아사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 상황에서 그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명성.

축하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번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쿠시 제국의 거대하고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단지 북쪽으로부터의 기동으로부터였습니다. 오른쪽? 흥미롭지 않나요? 그는 큰 일들을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작은 위협은 자신의 두뇌와 외교력을 사용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 볼 기회가 없었다면 다시 열왕기상 15장으로 돌아가서 읽어 보십시오.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조.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라마를 점령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라마를 갖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교통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목졸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쪽 왕국을 교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국경을 벤저민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바아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외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저 위쪽 어딘가에 있어요.

시리아. 벤하닷.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바아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대가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북쪽에서 와서 북쪽 왕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목에서 모든 군대가 제거될 것이고 나는 여기서 군사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벤하닷이 공격하여 북쪽의 매우 중요한 장소를 점령하고 열왕기상 15장에서 그곳을 침공 경로로 지정하고 바아사는 그대로 자신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싸우고, Asa는 하, 여기가 내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Mitzpah 를 요새화하고 , Geba를 요새화하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차로 지역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다시 와서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구스 사람들에 맞서 여호와를 신뢰하셨습니다. 너도 여기서 했어야 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이것을 더 구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유사점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글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응, 케이틀린? 그것은 우리가 정복할 때 본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상의하는 대신에 곰팡이 핀 빵과 낡은 신발만 보고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나는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입력을 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행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브온 사람들의 물건에 안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사는 이런 맥락에서 주님과 상의하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검토입니다. 응, 레베카.

라마는 그가 가서 불잡고 잡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는 교차로를 갖게 됩니다. 이 길은 최고가 아닙니다. 라마를 거쳐야 합니다.

라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샤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북쪽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쫓겨난 아사는 미츠바와 게바라는 두 사람을 매우 영리하게 요새화합니다.

바샤가 기본적으로 내 뒷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 상의하는 대신, 그는 단지 이 모든 외교를 수행하고 벤하단에게도 보답합니다. 내 말은, 그것은 그것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는 외국의 불경건한 실체, 즉 정치적 실체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므리 왕조. 바알 승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므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녀의 이름은 J, Jezebel로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자이자 페니키아 신부입니다.

그녀는 또한 어떤 월 플라워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종류와 그녀가 저지르는 잔인함을 볼 때 매우 추악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녀의 의도는 아합과 함께 바알을 국교로 승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했듯이 바아사의 왕조는 끝나고 일은 암살되며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합니다. 북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이자 군대의 사령관인 오므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계를 받아 일종의 질서를 가져오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북부 왕국 전체가 페니키아, 특히 종교적 영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들은 비, 천둥, 농업 생산의 신이자 엘리야의 무대를 마련하는 신인 바알을 선호하여 주님을 거부합니다. 17장 1절. 아무 배경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든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요르단 건너편에서 왔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물론 우리는 그것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매혹적입니다.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 5장에서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많은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황이 건조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페니키아로 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는 바로 바알의 밭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셨나요? 그는 바알의 고향 땅으로 갈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사르밧 여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것은 소선지서의 한 장의 책을 기록한 오바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에게 갈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아합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오바댜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끔찍하고 타락한 곳에서도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맹렬한 손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몇 사람을 보호함. 그러니 명심하세요. 엘리야가 돌아와서 오바댜에게 이제 아합과 내가 함께 모일 시간이 된 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바댜는 조금 두려웠지만 준비를 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중 하나는 21절에서 백성을 앞으로 가는 엘리야입니다. 저는 지금 18장에 있고, 우리는 이 내용 중 일부를 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으로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그들 둘 사이에서 망설일 텐가? 즉, 언제까지 울타리 위에 앉아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거기 앉아서 충성을 선언하지 않을 건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엘리야후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극적인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께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면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완벽한 준비 장소인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멜의 높은 고도는 지중해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곳은 대개 비가 많이 내립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갈멜 산이 말랐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갈멜이 아모스 나훔을 시들에게 하면 상황이 정말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멜산은 말랐습니다.

이곳은 모든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자기 자신과 온갖 종류의 칼을 베기 위한 바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그것을 세우고 물, 곧 귀한 물을 이 희생제물 전체에 부어 그것이 제단 밑까지 흐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까지 쏟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는 하나님께서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올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3장을 기억하시나요? 만일 선지자가 와서 내 이름으로 말하며 너희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언약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응.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한 사람도 도망치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이 백성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 멋진 작은 갈멜회 수도원이 있다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그는 온화한 엘리야가 아닙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아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 머리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아합보다 앞서 이스르엘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세요. 그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당신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그녀가 그를 위협한 다음 그는 갈멜 산, 즉 호렙 산, 시내 산으로 달려가서 언약의 근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할 몇 가지 일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먼저 19장에서 그는 낙담했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목소리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화재 이후의 지진 이후의 압도적인 침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두 번째 예후와 세 번째 엘리사는 그것이 다음 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알고 있거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신약성경과 관련하여 엘리야의 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기 4장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날이 돌아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 것이라

흥미롭게도 말하기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는 말하기를 할 때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엘리야와 물론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 사이에 그러한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할말은 많지만 수요일에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